

단령의 구성에 관한 연구

이태옥* · 조우현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단령은 등근 깃이라는 뜻으로 군신(君臣)이 착용한 관복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령은 검박(儉朴)하고 활동적인 옷의 형태로 AD 1세기 경 서아시아 일대의 기마 유목민족에게 발생 되었고 중국에서는 호복(胡服)이라고 불렀으며 4세기 초부터 17세기까지 군신(君臣)의 관복으로부터 일반인의 생활복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에서 착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28대 진덕여왕 2년(AD 648년)에 김춘추가 당(唐)나라 태종에게 단령을 하사 받음으로 착용하기 시작하였고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주로 관복(官服)으로 계속 착용하였고 현재에는 혼례 예복으로 착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착용되어 온 단령은 봉재와 구성면에서 깃의 너비나 형태 앞 뒤 길이 차이 소매의 너비 무의 변화 등 구성과 여러가지 면에서 변화를 거쳐왔다. 단령의 구조는 깃이 등근 형태에 옆 목점에서 매듭단추나 끈으로 여미며 길이가 길다. 따라서 15-16세기의 전단후장형 단령과 현재 혼례시 신랑 예복으로 착용되는 후기의 단령을 비교하여 구성의 차이점을 알아 보도록 한다.

통일신라시대(8-9세기경) 토용에 보면 착수에 옆트임이 있는 포와 아래에 횡란(橫欄)이 달린 봉액포(縫掖袍)가 공존하였으며 단령의 길이는 무릎 밑까지 왔고 영관(令官)만 발등까지 길게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성종 24년(1493년)에 쓰여진 『악학궤범』관복도설에 보면 녹초삼(錄納衫) 홍주의(紅紬衣) 녹주의(綠紬衣)는 단령에 소매 넓은 대수포이며 남주의(藍紬衣) 흑단령은 단령의 착수포이며 처용관복은 깃 너비가 아주 넓은 착수포이다. 이것으로 보아 악학궤범의 단령은 착수포와 대수포가 공존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백관들은 공복 상복 시복 등으로 단령을 착용했으며 받침 옷으로 직령을 입었다. 나중에는 홀 단령과 직령을 따

로 만들어서 겉과 안의 수구와 도련을 같이 붙여 공글러서 만든 것과 단령의 겉감으로 직령을 안감으로 4 겹 바느질로 한 것도 있다. 15-16세기의 단령 중 『악학궤범』의 처용 관복과 나주 정씨 출토 단령을 재현 해 보았고 현재 혼례 예복은 침선장(인간문화재)의 사사 구성품이다. 처용 관복은 겹단령으로 전단후장형이다. 뒤152cm 앞 140cm 고대 20cm 깃 너비 12cm 품 82cm 화장 128cm 수구 22cm로 깃이 아주 넓으며 깃은 바이어스로 하는데 깃 아래 부분을 늘려서 등글게 만들기가 까다롭다. 무는 없으며 허리 아래는 길게 트임이 있어서 활동에 불편이 없다. 나주 정씨 정응두 출토 단령은 홀 단령으로 전단후장형이며 뒤길이 132cm 앞길이 123cm 고대 18cm 깃너비 2.5 cm 품 75cm 화장 140cm 수구 38cm로 깃이 좁은 편이며 등바대는 U자 모양이며 무는 큰 주름이 바깥쪽으로 향하고 무의 상부가 아래를 향해 사선으로 접혀있다. 고름은 자주색 가는 고름이 한 쌍 달려 있다. 후기 단령의 형태는 앞 뒤 길이가 같으며 길이 135cm 품 31cm 고대 21cm 깃너비 6cm 화장 90 cm 두리 59cm 이고 봉재 방법도 겉과 안을 따로 만들어서 소매 배래만 네 겹 바느질을 한다. 이것으로 보아 형태의 변화는 앞뒤 길이가 같고 깃너비가 6cm로 된 것과 화장이 짧아진 것이 특이하며 무가 뒤로 젖혀져서 무의 끝이 위로 올라 간 것이 차이점이다. 특히 화장이 짧아진 것은 착용시의 편리함을 고려 한 것으로 보여진다. 혼례 예복인 단령은 겉감과 안감을 똑 같은 소재로 제작한다. 그러므로 봉재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안팎으로 착용하는 방법도 모색해보기로 한다